

설화의 주술성과 현대시의 수용양상

- 서정주와 박재삼 시를 중심으로 -

김 중 호*

<목 차>

- | | |
|----------------------|---------------|
| I. 서론 | 1) 서정주 시의 주술성 |
| II. 본론 | 2) 박재삼 시의 주술성 |
| 1. 『삼국유사』~조재 설화의 주술성 | III. 마무리 |
| 2. 현대시에 나타난 주술성의 양상 | |

【요 약】

본고는 『삼국유사』~조재 설화의 주술성이 현대시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논의의 대상이 된 설화는 <가락국기>, <수로부인>, <월명사 도술가>, <처용랑 망해사>이다. 이들 설화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술성은 설화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주요한 근간이 됨과 동시에 현대 시인들의 작품 속에 일정 부분 용해 또는 변용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술성을 근간으로 시를 창작한 현대의 시인으로 서정주와 박재삼을 그 대상을 삼았다. 이들 시인들은 한국적 한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대표적인 시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고대적 사유의 바탕이 된 일련의 사항들을 『삼국유사』~조재 설화의 주술적 요인과의

*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관련성을 통해 검토했다.

서정주의 시집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시의 양상들은 『삼국유사』~ 소재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술성이 시적 생명력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음을 살폈다. 「上歌手의 노래」, 「海溢」, 「新婦」의 시편들은 자연물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 통합된 소통구조를 통해 생명력을 고양시킨다. 자연물과 인간, 인간과 우주를 연결하는 바탕은 주술적 요인에 크게 힘입고 있다. 삶과 죽음의 단절 공간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신이성을 통해 영원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적 생명력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당의 시에서 주술성은 인간이 다른 사물과 접속을 행하는 방식의 근간을 형성하며 사물에 내재된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박재삼의 시에서도 주술적 요인들은 그의 시적 영역을 넓혀주는데 주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봄바다에서」, 「화합」,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일차적으로 ‘바다’, ‘신록’, ‘가을 강’에서 연유하고 있지만, 그 지향점은 유한자로서 인간이 사유하는 보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영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재삼의 시에서 주술성은 사물의 근원성과 주술적 요인이 연결됨으로써 시적 긴장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이면을 깊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

주술성은 원시문명으로 대변되는 고대적 사유구조로 대변되지만 정신적 갈등양상과 보편적 삶의 바탕을 형성하는 집단무의식의 측면에서 현대인에게도 상당부분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현대의 시인들이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서도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I. 서론

본고는 『삼국유사』~조재 설화에 나타난 일련의 주술적 양상을 넓은 범위에서 주술성으로 보고 현대시와의 상관성을 탐구함으로써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주술성이 현대시에 발현되는 양상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많은 현대시인들 가운데 한국의 정서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정주와 박재삼의 시를 그 대상으로 삼아 주술적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삼국유사』~조재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술성은 우리의 현대시에 그대로 적용, 또는 변모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쉽사리 확인하게 된다. 한편의 시가 발현되는 양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지의 지향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이 직면한 현실은 시·공간적 유한성을 지니고, 그 유한성을 정신적으로 넘어서고자 하는 자리에 시인의 상상력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삶의 공간은 일정하다. 그 일정함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시인이 추구하는 일련의 시창작 태도는 현실을 넘어선 자리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실 초월적 시 경향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과 땅, 바람과 물, 공기와 관련되면서 ‘원시적 종교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 밑바탕에 ‘주술적 상상력’)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술적 상상력은 피안의

1) 원시시대에 인류는 실제의 세계보다는 정령과 영혼, 천체 또는 자연의 힘을 인정하고 이것을 숭배나 금기시하고 주술적 방법에 의해서 迎送退禳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행하였는데, 그것을 흔히 原始宗教라 한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문화사대계 X』(종교, 철학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2, 23-24쪽.)

본고에서 ‘주술성’은 呪法時代의 原始宗教로 주술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로 사용됨을 밝힌다.

2) 본고에서 주술적 상상력이란 용어는 주술적 다양한 요인과 상상력의 접합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능케 하고 인간의 정신적 영역을 뛰어넘어 우주적 상상력까지도 가능케 함을 가리킨다.

『삼국유사』 조제 설화는 지은이가 승려라고 하는 점에서 불교의 종교 관념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불교는 고유의 토속 신앙을 흡수한 모습으로 동질화 형식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주력관념³⁾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력관념은 한반도에서 외래 종교를 수용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다고 간주되는 무속적인 종교 체험을 기반으로 자연현상·영혼 등에도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보고 그들을 숭배하는 ‘에니미즘(Animism)’사고가 반영된 신앙이었다. 한국의 종교사에서 볼 때 이 주력관념은 사회적인 유전을 계속하면서 외래종교 수용의 기반이 되어 왔다.

『삼국유사』 조제 설화에 나타난 불교관 역시 고유의 종교 관념이 융합되어 주력관념이 불교를 수용한 경우나, 불교가 주력관념에 뿌리를 내린 경우나 그 표층은 항상 불교적 색채이면서 그 심층에는 주술관념이 잠재해 있었다. 이러한 주술을 동반한 고대적 사유는 자연스럽게 삶의 형태를 만들고 구성원의 자연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은 원시시대 수렵채취 생활에서부터 농경생활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위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원시적인 생활에서든지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대 정보사회에서든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은 인간과 친화의 대상이면서 외경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모든 삼라만상이 어떤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되고 운행되는 것으로 믿었다. 여기서 인간들은 그 초월적인 힘을 인간의 편으로 유도, 재편성함으로써 닥쳐올 불행을 예방하고, 대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을 가리킨다.

3)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반도출판사, 1991, 220쪽.

그러한 힘을 인간편으로 유도, 재편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등장하였던 바 이것이 곧 呪術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삼국유사』에 나타난 주술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향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설화에 나타난 주술성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김승찬⁵⁾은 향가 작품은 呪詞의 성격을 띤 것이 하나도 없으나 배경 설화에 呪詞의 성격을 지닌 작품이 몇 편 있다고 하면서 배경 설화의 주술적 특질을 추론하였고, 김열규⁶⁾ 박노준⁷⁾은 주술이 나타나는 향가 몇 편을 呪歌로 보았다. 임기중⁸⁾은 신라가요와 그 기술물에 있어서의 주력관념과 불교와의 동질화 양상, 그리고 주술물의 유형 분류 연구가 있다. 『삼국유사』의 배경설화에 나타난 주술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현대시와의 전개 양상을 논의한 글은 극히 적다.⁹⁾

주술은 초자연적·신비적인 힘을 빌어 여러 현상을 일으켜 길흉화복을 가져오려는 일련의 방법이라고 할 때, 초자연적·신비적인 힘의 영역은 종교적인 성격과 깊게 관련된다. 『삼국유사』가 승려 일연에 의해서 편찬된 점을 감안하면 종교적 지향점은 불교적인 사항들과 상당부분 관련됨은 물론이다.¹⁰⁾

4) 박계홍, 「주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833-835쪽.

5) 김승찬, 「삼국유사 소재 향가의 주술적 특질」,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93, 64-74쪽.

6)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신라가요 연구』, 정음문화사, 1988.

7)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90.

8) 『신라가요와 기술물 연구』, 반도출판사, 1991, 80-210쪽.

9) 이명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계간시지, 「삼국유사의 시적 상상력」, 『시안』, 2000년 겨울호, 12-60쪽.

계간시지, 「한국현대시와 샤머니즘」, 『시안』, 2002년 겨울호, 6-68쪽.

『삼국유사』~조재의 설화와 관련하여 주술을 논의할 때 간과될 수 없는 것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식물과의 친화력이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삶의 공동체가 운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물이 동등하게 인식되고 소통되는 구조 속에서 삶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生者必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제한된 영역에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을 지향하게 되고 그 일련의 지향성이 주술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삼국유사』~조재 설화가 보여주는 주술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일련의 서사구조는 현대시인들이 문명화된 삶의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문명의 발달이 기계적 세례를 깊게 받은 현대 시인들에게 ‘주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더 큰 시창작의 내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술성을 통한 문학연구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비주의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소재주의로 빠지거나 문학의 내재적 요소를 간과할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수반하고 있다.

본고는 『삼국유사』~조재의 주술성과 관련하여 현대시인 가운데 서정주와 박재삼의 시를 그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대상 텍스트는 『미당시전집 1』(질마재 신화)11)와 『울음이 타는 가

10) 박성규, 三國遺事의 체제와 문학사적 의의, 『시안』, 2000년 겨울호, 14-25쪽 참조.

박성규의 위의 글은 일연의 삼국유사 편찬의도가 비속하고 낮은 백성들의 생활이 역사의 주류를 형성해나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비속하고 낮은 백성들이 역사의 주류가 되는 과정에서 빈부와 귀천이 융합하고 자연물, 동식물, 귀신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관 및 세계관의 밑바탕엔 인간외적인 존재로부터 힘을 얻는 주술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을강』¹²⁾이다.

II. 본론

1. 『삼국유사』~조재 설화의 주술성

『삼국유사』~조재 설화가 보여주고 있는 주술성이 현대시를 통해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삼국유사』에서 주술성을 근간으로 형성된 설화 내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조재의 설화에서 주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1) <가락국기> 설화와 주술성

<가락국기>¹³⁾를 통한 주술성은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구지가’를 가르쳐주고 이 노래를 부르며 군왕을 맞이하라는 명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구지가’라는 노래는 개인에게 명령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중에게 명령된 것이기에 특이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라의 호칭도 없이 九千의 추장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龜旨峯에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 2·300명의 무리가 모였다. 형체는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 왔다. 하늘의 명령으로 나라를 세워 君后가 되고자

11) 서정주, 『미당시전집1』, 민음사, 1994.

12)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강』, 미래사, 1995.

13) 『삼국유사』, 紀異 권2, <가락국기>. 인용한 책은 일연, 『삼국유사』(김원중 옮김, 을유문화사, 2002.)이고, 이하 인용문도 김원중의 번역을 따랐음을 밝힌다.

한다고 하고 ‘구지가’를 알려주며 왕을 맞으라고 말하였다. 군중이 모여 흠을 파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자색 새끼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금속속에 알이 여섯 개가 들어 있었다. 알이 동자로 변하여 가야국의 시조가 되었다. (밑줄은 필자, 이하의 인용 밑줄도 같음.)

‘구지가’의 노래는 하늘에서 ‘알’을 내려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군왕(수로왕)이 탄생하게 되는 주술력을 보여준다. 수로왕은 구지봉에 출현하기 전에 여러 무리들에게 하늘의 명령에 의하여 내려오는 것을 알린다. 그런데 사람의 형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알’이라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내려와 알에서 인간으로 변신하는 주술력을 발휘하여 태어난다.

대왕을 맞이한 ‘구지가’는 여러 군중이 함께 부르고 춤을 추는 집단적인 의지가 전달되어 나타난 呪歌로 이해할 수 있다. 흠을 파내는 노동의 집단 행위를 통해 주력적인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수로부인> 설화와 주술성

<수로부인>¹⁴⁾의 주술성은 노인에 의해서 획득된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로부인은 절세 미인이었다.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다가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었다.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바닷속으로 끌고 갔다. 순정공이 발을 구르며 어쩔 줄을 몰랐다. 한 노인이 나타나 여러 군중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땅을 두드리도록 알려주었다. 순정공이 여러 군중을 모아 ‘해가’를 부르며 노인이 가르쳐 준 방법을 그대로 하였다. 바다의 용이 수로부인을 내놓았다.

14) 『삼국유사』, 紀異 제2, <수로부인>.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다가 임해정에 이르러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나뉘쳐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정공이 넘어지며 발을 굴렀으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수로부인이 용에게 납치돼 버렸다. 神物로 표현되는 ‘용’에게 납치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한 노인이 등장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하니, 이제 바닷속의 짐승이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소. 마땅히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며 지팡이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순정공은 백성들을 모아 ‘해가’를 부르고 지팡이로 언덕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해가’는 순정공이 수로부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만들어 사용된 주술력을 보여준다.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는 것은 ‘해가’의 주술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3) <월명사 도술가> 설화와 주술성

<월명사 도술가>¹⁶⁾에 나타난 주술성은 天文의 재앙을 회복하는 과정에 나타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덕왕 19년 두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나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이 말하기를 인연 있는 승려로 하여금 散花功德을 지으면 재앙이 물러갈 것이라고 했다. 경덕왕이 청양루에 직접 나가 인연 있는 승려를 기다렸다. 이때 월명사를 만나게 되어 기원문을 지으라고 한다. 국선의 무리에 속하여 향가만 알뿐 범패는 모른다고 사양하다가 ‘도술가’를 지어 부른

15) 『삼국유사』, 紀異 권2, <수로부인>.

16) 『삼국유사』, 感通 제7, <월명사 도술가>.

다. 해의 변괴가 즉시 사라진다.

월명사는 승려다. 전통적인 梵聲에는 익숙하지 않고 향가만 알뿐이라고 경덕왕에게 말한다. 왕은 향가도 좋다고 하여 ‘도솔가’를 지어 부르니 해의 변괴가 제거되었다. 이는 정통불교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만들어진 ‘도솔가’는 불교적인 성격보다 주술성이 강한 노래임을 알 수 있다.

4) <처용랑 망해사> 설화와 주술성

<처용랑 망해사>¹⁷⁾의 주술성은 처용이라는 인물에 의하여 획득된다. 처용이라는 인물의 등장 배경과 재앙 발생 후, 처용에 의하여 재앙이 해결됨으로써 처용의 화상이 곧 주술성을 드러내는 부적으로 사람들에게 전이되는 이야기이다.

신라 헌강왕 때는 천하가 태평하였다. 헌강왕이 개운포에 놀이를 갔다가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길을 잃었다. 일관이 東海龍의 조화이므로 善行을 권유하였다. 헌강왕이 命하여 용을 위해 절을 짓게 하였다. 명령이 내려지자 구름과 안개가 걷히었다. 동해용이 기뻐하며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춤과 음악으로 덕을 찬양한다. 아들 중 한 명을 어가로 보내어 정사를 돌보게 하였는데 이름이 處容이다. 왕이 벼슬을 주고 미녀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 처용의 처가 미녀라 역신이 흠모해 그녀와 몰래 동침하였다. 처용은 그것을 보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 역신이 모습을 드러내어 굴복하고 처용의 형용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후 사람들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잡귀를 물리쳤다.

<처용랑 망해사>의 설화는 처용이라는 인물에 의하여 주술성이 획득

17) 『삼국유사』, 紀異 제2, <처용랑 망해사>.

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설화에서 처용은 동해 용의 아들이다. 처용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용의 아들로 인간 세상으로 나와 함께 생활한다는 점에서 주술성 획득의 주체자가 됨은 물론 신이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疫神이 사람으로 변해 그의 아내와 함께 자고 있었다. 이에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난다. 그때 역신은 모습을 나타내어 처용 앞에 꿇어 앉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공의 처를 탐내어 지금 범했는데, 공이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 감탄하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맹세코 이후로는 공의 형용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門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¹⁸⁾라고 하였다. 처용이 부른 노래와 춤은 역신을 물리치는 주력을 보여준다. 역신을 굴복시킨 노래는 다음과 같다.

東京 밝은 달에 / 밤들이 노니다가 / 들어 자리를 보니 / 다리가 넷이
어라. / 둘은 내해였고 / 둘은 누구했고. / 본디 내해다마는 / 빼앗은 것
을 어찌하리오.¹⁹⁾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역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용의 아들로써 자연의 질서를 초월한 인물임을 뒷받침해 준다. 처용이 부른 노래와 춤의 주술성은 역신을 물리쳤고, 처용의 화상은 역신의 맹세로 인하여 부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나타낸다²⁰⁾

18) 『삼국유사』, 紀異 권2, <처용랑 망해사>.

19)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현대어역, 서울대출판부, 1991, 94쪽.

20) 『삼국유사』~조개의 설화에서 주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다른 글들은 다음과 같다. <만파식적> 설화와 주술성. <천사옥대> 설화와 주술성. <도화녀 비행랑> 설화와 주술성. <연오랑 세오녀> 설화와 주술성. <분황사천수대비 맹아득안> 설화와 주술성.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 설화와 주술성. <신충패관> 설화와 주술성.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 주술성과 관련된 세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유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형화를 통해

위에서 살펴본 가락국기(紀異 제2), 수로부인(紀異 제2), 월명사 도솔가(感通 제5), 처용랑 망해사(紀異 제2) 설화에는 공통적으로 주술적 힘이 크게 작용하여 직면한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늘의 命’(가락국기)을 통해 행해지는 신이성과 ‘알’이라는 비인격적인 대상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과정에는 집단의 힘이 작용한 주술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용과 인간(부인)’이 중요한 대립대상으로 설정되어 진행되는 <수로부인> 또한 ‘부인’의 납치와 다시 찾는 과정에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벗어난 전개과정이 주술성을 동반한다. 天文의 재앙에 인간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하늘의 변괴를 사라지게 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하지 않다. ‘疫神과 인간의 동침’이 중요한 대상이 되는 <처용랑 망해사> 또한 신이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술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호소함으로써 질병의 치료나 강우·풍작·풍어 등, 의도한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신앙·관념 체계의 총칭을 呪法²¹⁾이라고 할 때, 동물과 인간, 하늘과 인간, 비인격적인 대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신이성이 나타나고 그 일련의 신비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萬爲混有의 세계관²²⁾을 대변하여 주고 있다.

한편 ‘시의 세계는 자아와 세계의 일체감을 구현²³⁾한다고 할 때, 『삼국유사』~『조재의 설화에 나타나는 신이성은 자아와 세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동일한 의식을 근거로 형상화하는 시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동일한 의식은 집단무의식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원형성과 관련하여 시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초월성과 신비성이 작용하는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이 지각하는 모든

현대시와의 상관성을 검토한다면 더 깊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21) 안진태, 『신화학 강의』, 열린책들, 2002, 165쪽.

22) 이어령, 『한국인의 신화』, 서문문고, 1972, 177쪽.

23)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9, 63쪽.

것은 언제나 특수한 정조에 몰들어 있고, 인간은 언제나 자연과 신에게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모든 대상을 의인적으로 인식하는 시적 사고와 일치²⁴⁾하는 관계로 현대시의 영역을 확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됨은 물론이다. 주술적 힘은 현대시의 비유의 영역에서 은유를 건너뛰고 상징으로 연결되는 내재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유추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의 발달과 문명의 진보에 따라 언어는 자연과 신을 부를 수 없고 공감시킬 수 없다는, 언어의 주술적 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²⁵⁾ 인간의 사고·감정과 감각적 대상이 조화적으로 통일되어 있던 ‘원초적 통일성’이 추상과 구상, 특수와 보편, 사상과 감정, 주관과 객관이라는 여러 가지로 대립되는 짝으로 분열되는 결과²⁶⁾가 현대시가 보여주는 중요한 양상이라고 지적될지라도, 주술적 상상력을 통한 현대시인의 동경과 탐구는 인간의 삶에서 도외시될 수 없는 근간이 되고 있다.

2. 현대시에 나타난 주술성의 전개 양상

1) 서정주 시의 주술성

서정주의 여러 시집 가운데 『질마재 신화』의 시편들은 개인과 가족에 대한 기억의 공간이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종교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특징이 있다. 종교적 대상이 되는 그 밑바탕엔 한국적인 생명이나 영혼을 미당 시의 제재로 삼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당은 『질마재 신화』를 통해 시인 자신의 상상력을 유년기의 고향

24) 김준오, 위의 책, 같은 쪽.

25) 김준오, 위의 책, 59-60쪽.

26) 김준오, 위의 책, 60쪽.

으로 끌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로 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유년기의 고향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돌아가야 하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 시 속에 융해된 이야기 형식은 미당 자신의 어린 시절 고향을 형성했던 일군의 특징적 인물들과의 관련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인물형의 내재성은 일종의 주술의 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질마재 上歌手의 노랫소리는 답답하면 열두 발 상무를 짓고, 따분하면 어깨에 고깔을 쓴 중을 세우고, 또 喪輿면 喪輿머리에 퇴약별 같은 노쇠요령 흔들며, 이승과 저승에 뺨쳤읍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안 하는 어느 아침에 보니까 上歌手는 뒀간 똥오줌 항아리에서 똥오줌 거름을 옮겨 내고 있었는데요.

왜, 거, 있지 않아,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오줌 항아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앉세 작파해 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똥오줌 항아리, 거길 明鏡으로 해 망건밑에 엮 발질을 열심히 하고 서 있었읍니다.

망건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털들을 망건 속으로 보기 좋게 밀어넣어 올리는 쇠뿔 엮발질을 점잔하게 하고 있어요.

明鏡도 이만큼은 특별나고 기름져서 이승 저승에 두루 무성하던 그 노랫소리는 나온 것 아닐까요.

- 「上歌手의 소리」 전문 -

이남호는 ‘서정주의 시를 읽는 맛의 버금이 그 귀신들린 언어와 수작하는 재미라면 그 으뜸가는 맛은 그 속에 표현된 겨레의 아름다운 마음을 만나는 감동²⁷⁾’이라고 평한 바 있다. 미당의 언어는 토속어를 능숙능란하게 구사함으로써 독보적인 시적 경지를 터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시에 등장하는 인물을 신성한 자리에 올려놓아 대상과의 인식이 생과 사를 뛰어넘는 자리까지 뻗쳐가게 하는데 그 특징이

27) 이남호, 「겨레의 말, 겨레의 마음」, 『미당연구』, 민음사, 1994, 411쪽.

있다.

『상가수 소리』에서 상가수의 노랫가락은 무엇인가 삶의 장애적 요인에서 만들어진다. 즉 ‘답답하면’ 만들어지는 노랫가락인데 그 대상은 다름아닌 ‘똥오줌 항아리’를 통해 형성되는 ‘明鏡’이 그것이다. ‘명경’의 주된 요인은 천한 것으로 인식되는 ‘똥’인데 똥을 통한 소통 속에서 새로운 삶의 출구가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작거나 크거나를 가리지 않고, 소중한 것이나 비속한 것을 가리지 않으면서 인간의 의식과 소통이 형성되는 가운데 삶의 지향점을 찾는 과정은 상가수를 상가수되게 만드는 심미적 힘으로 연결되며 그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명력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우리의 설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주술적 요인과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明鏡도 이만큼은 특별나고 기름져서 이승 저승에 두루 무성하던 그 노랫소리는 나온 것 아닐까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감정상태야 말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이상향의 추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 구조는 그가 추구하는 시 세계의 본질로 작용하고 있다. 저승 세계를 그리면 슬픔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이야기와도 같은 감정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주술적 사유가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깐 똥오줌 항아리에서 똥오줌 거름을 옮겨내고’에서 볼 수 있는 삶의 공간은 평범한 일상적인 삶과 일상적 단순한 작업 속에 진리가 녹아 있는 곳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달과 별이 뜨는 신화적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물로 상징되는 똥과 천체적인 이미지인 별과 달의 병치, 항아리와 같은 질그릇이 상징하는 자궁의 공간은 생명의 공간이자 또 다른 의미의 재생과 부활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²⁸⁾ 오물은 오물만으로 멈추

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의 공간으로 반복되는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 곧 똥오줌을 걸러내는 잡스러운 일상인의 삶의 모습과 죽음을 관장하는 소리꾼 上歌手의 변신을 통해 미당의 시적 상상력은 신비스럽고 주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삼대 울타리 틈으로 새어 옥수수밭 속을 지나서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날 나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노라고 이빨 속까지 너무나 기쁜 종달새 새끼 소리가 다 되어 알밭로 킁킁거리며 쫓아다녔습니다만, 항시 누에가 실을 뽑듯이 나만 보면 옛날이야기만 무진장 하시던 외할머니는, 이 때에는 웬일인지 한 마디도 말을 앓고 늙은 얼굴이 옅은 노을 빛처럼 불그레해져 바다쪽만 멍하니 넘어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왜 그러시는지 나는 아직 미처 몰랐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신 인제는 그 이유를 간신히 알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漁夫로, 내가 생겨나기 전 어느 해 겨울의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선지 휘말려 빠져 버리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하니,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집 마당에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 「海溢」 전문 -

시 「海溢」은 죽어서 해일이 되어 다시 할머니를 보러 온다는 재생의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가 상징하는 남성적인 이미지 앞에서 할머니는 ‘노을 빛을 닮은 얼굴만 붉어져 새색시처럼’ 죽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서정주는 인간의 시간을 죽음과 재생의 연속 공간으로 풀어놓음으로써 인간이 지켜가야만 하는 질서를 벗어나고 있다. 인간의 질서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마을이 아니라 시간과 공

28) 이승훈 편저,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6, 515-516쪽.

간이 거세되고 신화가 살아 숨쉬는 ‘질마재’ 공간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 그들은 영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지켜가는 인간으로서 죽은 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질서를 벗어난 세계는 주술적인 신이성을 가진 영원히 사는 인물로 그려짐으로써 시적 세계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닷물이 지닌 근원적인 생명력은 포용과 관용의 이미지, 그리고 자유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바다가 해일이 되어서 할머니를 만나러 넘쳐 들어오는 과정은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신화의 시·공간이 된다. 죽은 할아버지가 살아 있는 할머니를 만나는 것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로 귀결될 수도 있지만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욕망의 자리와 인간적인 유대감이 죽음을 넘어선 그 너머의 세계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심판을 받고, 지옥과 천국의 길로 각각 유랑하는 종교적 사유방식이 아닌 재생과 순환의 논리구조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²⁹⁾

서정주 시의 비유체계에 있어서 여성의 심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시인의 개인적인 체험세계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당 시의 풍부한 상징성의 모태를 이룬다. 특히 父性의 부재라는 상황에서 시적 자아를 포용하는 大母性의 심상은 미당 시의 중심 모티브로서 그의 초기시에서 후기시까지를 관통한다.³⁰⁾ 미당 시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적 이미지는 기다림의 이미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에게서의 기다림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기다림으로 대지의 근원적인 이미지와 궤를 같이한다. 자연물을 통해 생명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미당 시는 주술적인 힘이 내포됨으로써 이승과 저

2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1996, 297-300쪽 참조.

30) 오탁번, 「미당시의 비유와 모성심상」, 『현대시의 이해』, 나남출판, 1998, 89쪽.

승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을 초월한 세계를 보여준다.

新婦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新郎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쩌귀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新郎은 생각이 또 급해져 제 新婦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 다리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다. 문 돌쩌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四十年인가 五十年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탄 볼일이 생겨 이 新婦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新婦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新婦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 「新婦」 전문 -

「新婦」를 통해서 미당은 관능적 이미지와 본능적 배설행위의 병치를 통하여 현실 세계 와는 전도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구체적인 기다림의 몸짓을 구현하고 있다.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다. 4·50년을 기다리게 만드는 신랑의 행위도 그렇지만 오줌을 누러 가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일어나는 비현실성도 그렇다.

미당 시에서 물의 이미지는 때로 관능적 행위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생명의 유액과 일치되어 드러난다. 또 그런 과정은 ‘전설 속의 여성³¹⁾

31) 이 시는 <황씨부인당 전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신랑의 오해로 첫날밤도 치르지 못한 신부의 비극적인 일생이 극화되어 있다. 신부와 관련된 이야기 구조는 한이라는 전통적 정서를 잘 담고 있다고 하겠다. (김열규, 『한국의 전설』, 삼성인쇄주식회사, 1980, 139쪽 참조.)

의 이미지로 환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초록재와 다홍재는 아름다운 신부의 죽음의 이미지이자 천년 세월이 지나도 흐르고 흐르는 모성의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에서 드러나는 비극성은 비극성으로만 머물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일상적 삶의 유형을 뛰어넘는 주술적 기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캠벨은 신화가 자연과 개인의 본성을 통합시킨다고 보아 상상력으로 구현된 작품속에서 인간과 무의식 속의 신화의 세계 즉 본원적인 고향으로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천체적, 우주적 의미의 신화적 상상력은 작품 속에 구현된 해와 달, 별들의 총체적 상징물로 구현된 세계를 의미한다.³²⁾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 가운데 천상적인 곳으로 다가서려는 욕망, 비상하려는 욕망,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설화나 주술적 상상력의 근간은 모두 인간이 얼마나 우주와의 합일을 꿈꾸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대지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들은 상승의 상징체계들로 채워지면서 주술적인 공간을 형상화하고 신비스런 영역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주술적인 힘은 미당의 시에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거나 개인적 질서의 세계에서 보편적 순환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의식으로도 나타난다.³³⁾

위에서 살펴본 ‘上歌手의 소리’, ‘海溢’, ‘新婦’는 자연물과 인간의 동화, 죽은 할아버지와 살아 있는 할머니의 해일을 통한 만남, 시간대를 뛰어넘어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지속되는 양상들은 끊임없이 삶의 단일성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세계로 지향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적 상상력의 밑바탕을 형성하는 주술성은 삶을 순환

32) 조셉 캠벨·빌 오어스, 『신화의 힘』, 이윤기 역, 고려원, 1996, 119-120쪽.

33) 이러한 주술성의 양상을 보여주는 시로는 「까치마을」, 「분지리 버린 볼칼」, 「말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적 구조로 인식한다든지 삶과 죽음을 동일한 범주에 놓고 인식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때로 자연물(바다, 대지, 하늘 등)은 원형성과 연결됨으로써 모성의 세계, 초월적 경향, 우주와의 합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

2) 박재삼 시의 주술성

박재삼은 한국의 고유한 정서와 가락을 恨의 표출로 계승하면서 시 세계를 심화시킨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어의 평이함과 구어체의 자연스러움이 그의 시를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하다. 문체적인 측면에서도 종결어미의 과감한 변형과 古語와 方言을 적극 활용하여 산문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능력은 박재삼 시의 독특한 개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박재삼의 시는 우리 민족의 근원적인 정서를 시화함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눈물과 탄식, 그리고 비애미는 ‘한’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전통 정서와 연결됨으로써 삶의 기본적인 구조를 내포하면서 인생과 자연의 온갖 비밀을 담고 있는 본질적 요소이다.

본 장에서는 박재삼 시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승화되는 주술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의 이미지는 원형적 심상으로 손꼽히는 것으로 죽음과 탄생, 이별과 생명력을 의미함과 동시에 모성적인 성향이 강한 상징으로 드러난다. 그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의 이미지는 ‘눈물’로 대변된다.

한편 박재삼의 시는 설화적 인물인 ‘춘향’, ‘홍보’, ‘심봉사’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 인물의 삶을 통해 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현대인의 모습 속에 투과시켜 재현하기도 한다. 그들의 생로병사의 모습은 다름 아닌 자연의 모습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이며, 그런 자연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실의 아픔을 달래고 의지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힘을 보여준다.

한편의 시 작품속에 내재된 상징체계는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경우가 많다. 융은 인간 사이키psychy-의식적, 무의식적 마음활동의 총합-가 어떤 실제적인 분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³⁴⁾ 그는 또한 이미지들과 동서양의 종교, 신화, 전설, 제의에 나타나는 상징들, 특히 연금술 같은 秘敎的 경향에 나타나는 상징들 사이의 유사성에 따라 우주적 의미, 상징적 표현이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보고 있다.³⁵⁾

물은 우주의 씨앗이며 태초의 생명체의 직접적 요인이자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면서 문예 작품 속에 보편적으로 드러난다. 강의 이미지나 바다의 이미지는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생명력의 고향이자 삶의 편력으로 작용한다. 박재삼의 시를 통해 볼 수 있는 유년의 기억은 신화적 의미로 부활하고 있는데, 물과 연관된 주술적 상상력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재삼의 시세계에서 한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물은 슬픔의 초월의지로 드러난다. 강물이 한의 초월적 이미지로서 긍정적인 매개체가 된다면 바다는 어린 날의 추억의 공간으로써 재생된다.

M. 엘리야데는 바다를 실제적인 전 우주로 지칭하였다. 이는 ‘모든 잠재 능력의 저장소로서 모든 형태는 그로부터 이룩되어 나온다.’라고 규정했으며 죽음과 재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재생과 조화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기도 했다.³⁶⁾

‘아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여인들이 정월 대보름 날 우물에 비쳐 있는 달 그림자를 바가지에 떠서 마시는 풍습이 우리에게 있었다³⁷⁾는

34) 데이비드 폰테너, 『상징의 비밀』, 최승자 역, 문학동네, 1998, 11쪽.

35) 데이비드 폰테너, 위의 책, 같은 쪽.

36) N. Frye(외 16인), 『문학과 신화』, 김병욱 외 옮김, 대방출판사, 1981, 74쪽.

37)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2000, 15쪽.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물과 관련된 상상력은 설화에 투영되어 그대로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형성하고 현대시 속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슬라르는 바다(물)가 때로는 하늘과 맞닿아 있거나 대지와 맞닿아 있어 상호 교류적인 모습으로 상징화하고 있어 순환적인 상상력의 체계와 연계될 수 있음을 반증하였다. 결국 물질적인 상상력은 대지와 물, 그리고 증폭된 바다, 이와 관련된 생명 탄생의 신비감이 투영된 모습으로 주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1

화안한 꽃밭갈네 참.

눈이 부시어, 저것은 꽃핀 것가 꽃진 것가 여겼더니, 피는 것 지는 것을 같이한 그러한 꽃밭의 저것은 저승살이가 아닌 것가. 실로 언짢달 것가, 기쁘달 것가.

거기 정신없이 앉았는 섬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았다 해도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숨소리를 나누고 있는 반짝이는 봄바다와도 같은 저승 어디쯤에 호젓이 밀린 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가.

2

우리가 少時적에, 우리까지를 사랑한 南平文氏 夫人은, 그러나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 한낮의 꽃밭 속에 치마를 쓰고 찬란한 목숨을 풀어헤쳤더란다.

확실히 그때로부터였던가, 그 둘러썬던 비단치마를 새로 풀며 우리에게 까지도 설레는 물결이라면

우리는 치마 안자락으로 코 훔쳐주던 때의 머언 향내 속으로 살달아 마음달아 젖는단 것가.

*

뚝단배 두엇, 해동갑하여 그 참 흰나비 갈네.

- 「봄바다에서」 전문 -

이 시는 ‘화안한 꽃밭’과도 같은 봄 바다의 정경에 화자의 서러우면

서도 절제된 독백이 어우러져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것가’라는 박재삼 시인 고유의 종결어미가 쓰인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것인가’라는 말을 줄여 써서 인생무상의 정조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주고 있다.³⁸⁾ 시에 등장하는 ‘남평문씨’는 실제로 어린 시절 박재삼의 이모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실제의 이름이 남평문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고를 알 수 없이 물에 빠져 죽은 기억을 불러 일으켜 시적 모티브로 형상화하였다.³⁹⁾

봄 바다와 섬을 매개체로 하여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순환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는 유년기의 사건이 중심이 된다. 화자의 유년기에 각인된 남평문씨 부인의 자살이 그것이다. 이 시에서 바다는 누군가가 자살한 음울한 공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환기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연에서 볼 수 있는 ‘흰나비’는 봄 바다에 떠다니는 뚝단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공간적 매개자 역할을 한다.

신화는 모든 사물에 신성성과 함께 인간적인 모습을 재생시킨 이야기들의 구현체이다. 또 시인의 기억 속에 남은 유년의 흔적들의 표상이자 근원적 그리움의 무의식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 한낮의 꽃밭 속에 치마를 쓰고 찬란한 목숨을’ 끊은 남평문씨 부인은 우리의 이웃에서 사랑이 원인이 되어 목숨을 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재삼의 시에 드러나는 ‘바다’가 ‘꽃’의 이미지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영혼들이 안식을 취하는 곳으로 이해된다. 처절한 죽음이 오히려 죽음과 삶의 공간을 遊泳하며 해동갑하고 있는 것으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유 있는 관조의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

38) 한계전, 『한계전의 명시 읽기』, 문학동네, 2002, 38쪽.

39) 이명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1, 68쪽.

다. 꽃밭이라는 시어는 물의 무거움과 빛의 가벼움을 동시에 함축함으로써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준다. 그 다른 차원이란 밝음과 어둠, 가벼움과 무거움, 이승과 저승이 모순되지 않고 서로 순환하는 관계라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 시는 자살이라는 어둡고 불길한 사건을 ‘꽃밭’으로서의 봄 바다와 연결하여 초연한 경지, 기쁨과 서러움을 모두 초탈한 경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어둠, 불길함, 한스러움을 승화시킨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비로 환생하는 설화는 한국인의 윤회사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나비는 주로 여성성의 이미지로 속담, 불교의 나비춤,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모란의 그림과 그 씨앗을 보낸 설화 등에서 주요 소재로 등장⁴⁰⁾하는데 그 밑바탕엔 주술적 힘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술렁거리는

무수한 新綠이 없었더라면
땅이 심심해 어쨌을까나.

소슬하고 찬란한

별들이 박히지 않았더라면
바다가 외로와 어쨌을까나.

땅과 바다의 몸부림이 있고 나서 비로소

땅은 아름다워지고
바다 또한 아름다워졌느니

사랑이여

너 숨이 찬 新綠이 있고
너 출렁거리는 별이 있고
요컨대 괴로움이 있고 나서

40) 『한국문화상징사전』, 142-145쪽 참조.

이승에 아름다움을 보태게 되는가.

- 「和合」 전문 -

박새삼의 시세계는 만물을 인간사와 접 맥시키고 포용하는 작품들이 많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일치를 지향하는 시정신은 곧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인생관으로 자리잡게 되어 이승과 저승을 동일시하는 보다 큰 화합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⁴¹⁾ 「화합」에서 시인은 자연의 이법과의 조화를 지향하는 서정적 긴장을 드러내면서 ‘몸부림’과 ‘괴로움’을 현생으로 아름다움을 전하는 근원으로 인식한다⁴²⁾ ‘新綠’과 ‘땅’, ‘별’과 ‘바다’의 소통과정을 통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궁극의 지점에 참된 사랑의 아름다움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고 인간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연과의 합일정신은 주술력이 표출하는 주요한 기능이다.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너보다도 니보다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와가는

41) 오탁번, 앞의 책, 119쪽.

42) 백운복, 「서정적 恨의 형상」, 『현대시의 논리와 변명』, 국학자료원, 2001, 123쪽.

소리죽은 가을江을 처음 보겠네.

- 「울음이 타는 가을江」 전문 -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을 저녁을 노을 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강의 모습이다. 시적 화자가 노을이 타는 강을 주시하게 된 배경에는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가 있다. 즉 노을로 물든 가을 강은 ‘울음이 타는 강’으로 사랑의 고통과 그에 대한 승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가을 강물결에 반짝이는 노을빛을 울음이라는 청각적인 이미지로 치환하는 독특한 어조의 효과도 십분 살아 숨쉬고 있지만, 그보다도 모성의 이미지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이미지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박재삼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⁴³⁾

이 시는 제삿날 큰집 가는 고향 길에서 만나게 되는 노을 빛을 통하여 어린 시절의 유년의 기억을 재생시키고 있다. 제삿날 큰집으로 가는 길은 죽은 자와 산자가 만나는 재회의 공간이다. 노을은 내일로 연결되는 복선의 의미를 지니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한의 응결체로 번져 있는 천상과의 교감을 형성하는 배경이다.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 시적 형상화에 성공하고 독자에게 감동적으로 읽혀지는 이면에는 ‘강물’을 통해 시인이 투사한 삶의 긴장력에 기인한다. 그 긴장력을 이끄는 요소들은 물론 일상적인 ‘사랑 이야기’가 ‘눈물’로 드러나면서 삶의 질곡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의 지속성은 시간적으로 인생의 흐름과 일치되는 요인이지만 강물은 시간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영원성을 나타내고, 인생은 유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계절적 순환을 통해 ‘가을 강’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생의 노년기를

43) 심재휘, 「슬픔의 상상력」, 『1950년대 시인들』, 나남출판, 1994, 378쪽.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직면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소리 죽은 가을 강’의 본질이다. ‘소리 죽은 가을 강’이 소생불가능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골 물 소리’로 대변되는 인생의 청춘기를 다 보낸 후 깨닫게 되는 삶의 투영이다. ‘가을 강’을 통한 시인의 시적 인식 과정은 인생의 여정이 강물처럼 영속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드러나고 자연물(강물)에 내재된 원형성과 연결되는 주술적 힘을 통해 시적 긴장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자연물과 시인이 소통하는 주술적 상상력을 통해 ‘강물’은 ‘눈물’ 이미지로 나타나고 ‘울음이 타는 가을 강’으로 시적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박재삼의 시 ‘봄바다에서’, ‘和合’,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인간이 자연물을 매개체로 주술적 힘과 상응하는 교감을 얻음으로써 시적 상상력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주술적 힘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상력은 ‘바다’, ‘별’, ‘강물’ 등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제한된 정신영역을 넓혀나가고 삶의 진실성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는 삶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할 때 그 가능성은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생성성⁴⁴⁾과 관계된다고 하겠다. 인간은 생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잠재성을 간직하고 있다. 체험, 사유, 이미지, 언어, 생산, 발명 등이 모든 면에서 그 잠재성은 무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서정주와 박재삼의 시가 보여주는 일련의 양태들은 고대적 사유의 근간을 이루는 주술적 힘에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 생성적 존재의 실현으로 시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삼국유사의 설화나 노래는 현대시인들의 시쓰기 노력을 통해 현대시로 패러디한 경우와 재창조된 그 산물에서 잘 드러난다. 서정주와 박재삼은 한국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대표적인 시인이

44) 서준섭, 「전통의 수용과 시적 재창조」, 『시안』 2000년 겨울호, 27쪽.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정주는 신라의 여러 자료를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시속에 재창조한 시집 『신라초』(1961) 등을 통해 삼국유사의 구비전승물들이 현대시인들의 문학적 관심을 끌게 만든 대표적인 경우이다.

삼국유사 수록 설화를 시적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은 또다른 시인은 김춘수이다. 그는 시 『처용단장』을 통해 고대의 설화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시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수로부인의 노래’를 쓴 문덕수, ‘처용의 딸’의 이하석, ‘맛동의 노래’의 윤석산, ‘도술가’의 김혜순, ‘월명’의 박제천, ‘지귀의 노래’의 송재학, ‘처용암’의 박태일, ‘경주 남산’의 정일근, ‘신처용가’의 정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⁴⁵⁾

현대 시인들은 설화의 주술성을 시적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물과의 융합된 소통방식을 통해 인식의 영역을 넓혀갔음을 알 수 있다. 또 일시적이고 단생적인 인간한계를 영원성과 관련시켜 우주적인 확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생과 사의 인식을 통합하는 가운데 삶의 생명력을 고양시켰다고 하겠다.

Ⅲ. 마무리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조재 설화의 주술성이 현대시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논의의 대상이 된 설화는 <가락국기>, <수로부인>, <월명사 도술가>, <처용랑 망해사>이다. 이들 설화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술성은 설화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주요한 근간이 됨과 동시에 현대 시인들의 작품 속에 일정 부분 용해 또는 변용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술성을 근간으로 시를 창작한 시인으로 서정주와 박제삼을 그 대

45) 서준섭, 앞의 글, 29쪽 참조.

상을 삼았다. 이들 시인들은 한국적 한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대표적인 시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고대적 사유의 바탕이 된 일련의 사항들을 『삼국유사』~조재 설화의 주술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통해 검토했다.

서정주의 시집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시의 양상들은 『삼국유사』~조재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술성이 시적 생명력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음을 살폈다. 「上歌手의 노래」, 「海溢」, 「新婦」의 시편들은 자연물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 통합된 소통구조를 통해 생명력을 고양시킨다. 자연물과 인간, 인간과 우주를 연결하는 바탕은 주술적 요인에 크게 힘입고 있다. 삶과 죽음의 단절 공간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신이성을 통해 영원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적 생명력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당의 시에서 주술성은 인간이 다른 사물과 접촉을 행하는 방식의 근간을 형성하며 사물에 내재된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박재삼의 시에서도 주술적 요인들은 그의 시적 영역을 넓혀주는데 주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봄바다에서」, 「화합」,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일차적으로 ‘바다’, ‘신록’, ‘가을 강’에서 연유하고 있지만, 그 지향점은 유한자로서 인간이 사유하는 보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영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재삼의 시에서 주술성은 사물의 근원성과 주술적 요인이 연결됨으로써 시적 긴장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이면을 깊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

주술성은 원시문명으로 대변되는 고대적 사유구조로 대변되지만 정신적 갈등양상과 보편적 삶의 바탕을 형성하는 집단무의식의 측면에서 현대인에게도 상당부분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현대의 시인들이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서도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의 사회에서 물질적 역량이 문명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그 힘에

인간이 예속되는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현대의 시인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정신적 풍요와 지향점이 고대적 사유의 근간을 형성했던 주술성과 깊은 관련 하에서 시로 재창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주술성(Incantation), 서정주(Seo Jeung-Ju), 박재삼(Park Jae-Sam), 신화(Mythology)

참고문헌

계간 시지, 『시안』, 2000년 겨울호.
계간 시지, 『시안』, 2002년 겨울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한국문화사대계 X』,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출판부, 1992.
김금자, 『삼국유사』조재 설화에 나타난 주술성 연구, 우석대 교육대학원, 1996.
김승찬, 『삼국유사 소개 향가의 주술적 특질』,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93.
김열규 외, 『신삼국유사』, 사계절, 2000.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신라가요 연구』, 정음문화사, 1988.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2000.
김열규, 『한국의 전설』, 삼성인쇄주식회사, 1980.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현대어역, 서울대출판부, 1991.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9.
김 현, 『한국문학의 양식화에 대한 일고』,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8.
나희덕, 『서정주 시의 『질마재 신화』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9.

- 노 철, 『한국 현대시 창작방법 연구』, 월인, 2001.
-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90.
- 박성규, 「삼국유사의 체제와 문학사적 의의」, 『시안』, 2000년 겨울호.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미래사, 1995.
- 백운복, 「서정적 한의 형상」, 『현대시의 논리와 변명』, 국학자료원, 2001.
- 서정주, 『미당시전집1』, 민음사, 1994.
- 서준섭, 「전통의 수용과 시적 재창조」, 『시안』~2000년 겨울호.
- 심재휘, 「슬픔의 상상력」, 『1950년대 시인들』, 나남출판, 1994.
- 안진태, 『신화학 강의』, 열린책들, 2002.
- 오탁번, 「미당시의 비유와 모성심상」, 『현대시의 이해』, 나남출판, 1998.
- 이계운,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이남호, 「겨레의 말, 겨레의 마음」, 『미당연구』, 민음사, 1994.
- 이도흙,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2001.
- 이명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1.
- 이승훈 편저,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6.
- 이어령, 『한국의 신화』, 서문문고, 1972.
- 일 연, 『삼국유사』(김원중 역), 을유문화사, 2002.
-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반도출판사, 1991.
- 정신재, 「한국 현대시의 신화적 원형연구」, 『정신재문학비평집』, 국학자료원, 1995.
-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신화의 힘』(이윤기 역), 고려원, 1996.
- 한계전, 『한계전의 명시 읽기』, 문학동네, 2002.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1996.
- J. G. 프레이저, 『황금의 가지』(김상일 역), 을유문화사, 2002.
- M.H.Abrams, 『문학용어사전』(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7.

S.프로이트, 『토템와 금기』(김현조 역), 경진사,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노드롭 프라이 외, 『문학과 신화』(김병욱 외 역), 대방출판사, 1981.

데이비드 폰테너, 『상징의 비밀』(최승자 역), 문학동네, 1998.

<Abstract>

Incantatory Characteristic of Legendary Story and Progress Aspects Toward Modern Poetry

- Focused on the Poetry of Seo Jeung-Ju and Park Jae-Sam -

Kim, Jong-Ho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things for incantation shown in the legendary stories of 'Sam-Guk-Yu-Sa' was studied ; Incantatory Characteristic of Legendary Story Implicated in 'Sam-Guk-Yu-Sa' and Progress Aspects Toward Modern Poetry.

The things for incantation was the material things they were tools, songs, human being itself and so on, and the forms of them, were very various. And these things with the actions for incantation were used to overcome the crisis and to keep the state of peace. So the people used incantation to meet with the disasters positively when they happened and wanted to rely on a certain power which incantation had.

The legendary stories studied till now show that the things which had the power of incantation acquired naturally and artificially. And the things for incantation acquired in these ways had the power of incantation in protecting the country and in solving the problems faced at that time.

Because Seo Jeung-Ju and Park Jae-Sam are traditional - oriented poets, they embody the image of an internalized through the form of human lives.

In <Chilmajai Mythology> by Seo Jeung-Ju, through the situation

of a communal life, warm-hearted neighbour's image is the very style of life which resembles a heavenly body and Universe. The above work shows the village changed into enchanted space and many characters with having human being's own personality from historical people to normal persons.

Park Jae-Sam intends to go to Utopia through the structure of a basic recurrent hometown.

김종호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전화: 033-730-0215(연구실) 016-214-5701

e-mail: 1303jh@hanmail.net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